

《甌北詩話》에 나타난 吳偉業과 查慎行 시 평가

김 지 영*

〈目次〉

I. 서론	2. 사신행의 시 비평
II. 조익의 시론 및 淸初 시기	IV. 《구북시화》의 청시 비평 방식
1. 조익의 시론	1. 작가의 시대와 성장 배경 고찰
2. 淸初 시기	2. 비교와 고증의 수법 사용
III. 오위업과 사신행의 시 비평	V. 결론
1. 오위업의 시 비평	

I. 서론

조익(1727~1814)의 《甌北詩話》는 청대를 대표하는 시화집이다. 이 책은 중국의 대표시인 열 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시론을 집중적으로 논한 시가이론서로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국 시화집은 다루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형식이 자유로워 저자의 의식흐름에 따라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한 시인의 시론이나 작품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구북시화》는 작가별로 차례를 정해서 그 작가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논하여서, 한 작가의 시 세계를 전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이 《구북시화》가 중국의 다른 시화집과 차별되는 특징이다.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이백·두보·한유·백거이·소식이 각 1권이고, 육유가 2권 원호문과 고계를 합쳐서 1권이며, 오위업과 사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신행이 각각 1권씩이다. 나머지 2권은 이외의 작가들에 대한 餘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북시화》에는 원·명 시인의 시 뿐만 아니라 청대 시인의 시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시단에 만연했던 漢·唐만을 숭상하여 “사람들에게 당 이후의 책을 읽지 말라고 권한” 복고파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조익의 시가 관념을 구현한 것이다. 특히 자신보다 수십 년이 빠를 뿐인 사신행을 이백·두보 등과 함께 들어 나란히 논한 것은 조익이 시가발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고에서는 청대 시론가 조익의 《甌北詩話》(人民文學出版社, 1981)를 텍스트로 그 속에 언급된 淸詩 평가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 詩史에서 청시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음에도 청시에 대한 연구는 당·송 시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당·송 이후에 시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송 이후에도 문인들은 시를 지어 자신의 감개를 표현하고 서로 교류하였으므로,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는 작가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그 시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다. 청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요 개별 작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넓혀 청대 대표시화집인 《甌北詩話》를 대상으로 오위업(1609~1671)과 사신행(1650~1727) 작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청대 중기를 살았던 조익은 자신보다 앞서 살았던 오위업과 사신행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잘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의 작품 세계도 자세히 고찰할 수 있었다. 40여년의 시대 차이를 두고 살아간 오위업과 사신행은 왕조 교체기와 안정기라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사이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청대 지식인의 시각을 통해 오위업과 사신행의 시 세계를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청대 시가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조익의 시론 및 청시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북시화》에 나타난 오위업과 사신행의 시 비평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구북시화》 속의 청시 평가 양상을 1) 작가의 시대와 성장 배경 고찰, 2) 시

에 대한 비교와 고증 수법 사용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II. 조익의 시론 및 淸初 시기

1. 조익의 시론

조익은 청대 중기 복고의 기풍이 만연했던 시기에 시는 시대마다 새로
워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시대 특정 시인들만을 추송하
는 것에 반대하면서, 〈논시〉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其一)

萬眼生機轉化鈞,	눈 앞 가득했던 생기 바뀌어 조화를 이루고
天工人巧日爭新.	하늘의 솜씨 사람의 기교는 나날이 새로움을 다투네.
預支五百年新意,	앞서 오 백년간 새로운 뜻 지녔더라도
到了千年又覺陳.	천년이 지나니 다시 진부함 느껴지네.

(其二)

李杜詩篇萬口傳,	이백 두보의 시 만인에게 전해지지만
至今已覺不新鮮.	지금에 이르니 이미 신선하지 않음을 알겠네.
江山代有才人出,	강산엔 대대로 걸출한 인재가 나타나
各領風騷數百年.	각기 국풍과 이소 같은 작품 지은 지 수백 년 되었네.

조익은 이백과 두보의 작품도 시대가 지나면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주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가 보기엔 한 시기 한 작가의 작품만을 숭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낡은 관념이었던 것이다. 제아무리 참신하고 공교
한 작품이라도 시대가 지나면 진부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수
백 년을 이어온 중국 시가 역사에서 훌륭한 작가가 무수히 등장하였음을

1) 趙翼 著, 李學穎·曹光甫 校點, 《甌北集》 권28.

언급하였다. 이는 당시의 복고적인 시각을 벗어난 참신한 관점이었다. 한 시대 또는 특정 작가에게 얽매이지 않았던 조익의 견해는 《甌北詩話》의 집필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 조익은 자신과 동시대 사람인 오위엽과 사신행을 唐代 최고의 시인인 이백·두보와 함께 나란히 논하였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조익은 자신보다 단지 수십 년 앞의 사람인 사신행을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위엽 이후로 당송의 여러 시인들과 나란히 뒤를 이을 사람을 고르려 해도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오직 사신행만이 재기를 펼쳐냄에 있어 공력이 순수하여 내 친근한 생각으로는 그로써 여러 현인의 뒤에 잇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듣는 이는 이미 입을 가리고 웃는다. 이는 시를 짓는 일에는 진정한 본령이 있음을 몰라, 옛 것만 중시하고 지금의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솔하게 헐뜯는 것이다.²⁾

조익은 이 글에서 사신행의 공력이 순수한 점을 높이 사 그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옛 것만 중시하고 지금의 것을 헐뜯는(榮古虐今) 이들은 시의 진정한 본색을 모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그의 시학관이 반영된 것으로, 현 시대의 인물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으며 충분히 긍정할 부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조익은 아무리 걸출한 작가더라도 초년·중년·만년 시기의 작품 풍격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論詩〉³⁾에서 말하였다.

詞客爭新角長短,	문인들 새로움을 다투며 장단을 건주니
迭開風氣遞登場.	번갈아 새로운 기풍을 열면서 차례대로 등장한다.
自身已有初中晚,	시인 자신에게도 이미 초년 중년 만년 시가 있는데
安得千秋尚漢唐?	어찌 천년을 두고 漢代와 唐代 시만을 높이리요?

2)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故梅村後, 欲舉一家列唐·宋諸公之後者. 實難其人. 惟查初白才氣展開, 工力純熟, 鄙意欲以繼諸賢之後; 而聞者已掩口胡盧. 不知詩有真本領, 未加以榮古虐今之見, 輕爲訾議也.”

3) 趙翼 著, 李學穎·曹光甫 校點, 《甌北集》 권53.

같은 작자의 경우도 중년의 작품이 초년과 다르고 만년의 작품이 중년과 달라 시풍이 변하는데, 하물며 천년이라는 시가 역사에서 漢唐과 같은 한 시대에만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시가 역사와도 연결되는데, 한 시인의 시풍이 바뀌듯 시도 시대마다 변화되어 간다는 그의 주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상의 몇 수의 시에서 조익이 시가발전관을 가지고 시 창작에서 創新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런 관점은 《구북시화》 창작에 반영되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풍을 열면서 등장했던 오위업과 사신행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조익은 《구북시화》에 수록할 작가로 오위업을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략 그의 생애는 송 이후의 시에 대해 본말을 훑어보고 전부 唐人의 물을 들여, 자신의 창작력과 서적을 또한 스스로 끝없이 도도하게 펼쳐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인의 격조로 눈앞의 가까운 일들을 묘사하여 종파가 바를 뿐만 아니라 詞藻가 풍부하여 근대의 대가로 받들지 않을 수 없다.⁴⁾

이 글에서 조익은 오위업이 唐詩의 격조로 배워 종파가 바르고 풍부한 詞藻로 도도하게 글을 펼쳐낸 점에서, 여타의 시인들과는 달랐으므로 그를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淸初 시기

오위업과 사신행은 모두 청초 시인이지만 이들이 살았던 시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오위업은 명말·청초 왕조가 교체되는 정치·사회적으로 대격변기의 시대를 살았다. 오위업은 명대 명문가의 자제로 순탄한 관직 생활

4) 趙翼 《甌北詩話》 제9권, “蓋其生平, 於宋以後詩, 本末寓目, 全濡染於唐人, 而已之才精書卷, 又自能瀾灑不窮; 故以唐人格調, 寫目前近事, 宗派既正, 詞藻又豐, 不得不推爲近代中之大家.”

을 하였으나 그의 나이 36세 때 명이 망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⁵⁾ 그가 청 왕조의 부름을 받아 清朝에 출사했던 일은 이후 그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다. 유가의 지식인으로서 이민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면서 오위업이 겪은 고뇌는 그의 숙명이었다. 그는 明朝에 출사한 한인으로서 이민족이 세운 청조에 굴복하여 관직을 잠시 맡아 훗날 그의 행적이 《清史列傳·二臣傳》에 기록되는 수모를 당했다. 조익은 이 점에 대해 “그가 청조에 출사한 것은 천거에 의한 것이니 투항의 문서에 서명한 것과는 다르며, 죽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자탄하고 몹시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으니, 마음과 행적이 그래도 모두 양해할 만하다”⁶⁾라고 하며 그의 행적을 옹호하였다. 그의 후반부 인생은 초야에 은거하면서 진실한 참회와 자신의 회환을 시가창작으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신의 호를 딴 詩體인 ‘梅村體’⁷⁾를 완성하여 중국 詩史 발전에 나름의 발자취를 남겼다.

사신행이 활동하던 시기는 오위업이 활동하던 때와 달리, 이미 청 왕조의 통치권이 안정되어 있었고 명말·청초에 활발했던 한족 문인들의 저항

- 5) 오위업(1609~1672)은 江蘇省 太倉 출신으로 자는 駿公 호는 梅村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張溥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1631년(명 崇禎 4년) 23세 때 진사에 급제하여 翰林院編修官을 제수 받았고, 이후 東宮試讀官, 南京國子監司業 등을 역임하였다. 1640년(명 崇禎 13년)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온 뒤, 1644년(명 崇禎 17년)에는 李自成的 난으로 북경이 함락되어 崇禎帝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순절하려 했으나 집안의 만류로 그만두었는데 이때가 그의 나이 36세였다. 南明 정권이 수립된 뒤 福王의 부름을 받고 잠시 小詹事가 되었으나 馬士英·阮大鍼 등에 의해 배척을 당하여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이후 1653년(청 順治 10년) 청조의 부름을 받고 귀순하여 密書院侍講을 제수 받고, 후에 國子監祭酒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결국 1656년(順治 13년) 두 왕조를 섬긴 변절한 문인이라는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생을 보냈다.
- 6) 趙翼, 《甌北詩話》 제9권, “其仕於我朝也, 因薦而起, 既不同於降表命名; 而自恨濡忍不死, 跼天踏地之意, 沒身不忘, 則心與跡尚皆可諒.”
- 7) ‘梅村體’는 오위업 특유의 장편 칠언가행이다. 초당사결의 칠언약부 격률과 백거이의 〈長恨歌〉, 원진의 〈連昌宮詞〉 등으로 대표되는 長慶體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하였다. (魏中林, 『錢仲聯講論清詩』, 21쪽, 참조)

도 누그러진 상태였다.⁸⁾ 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청조에 반기를 들지 않았으며 안정된 사회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다. 사신행 역시 역사적 고민이나 아픔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 사신행은 그의 생애에서 이름과 字를 바꿀 정도의 커다란 사건을 겪었다. 그의 본래 이름은 嗣璉이고 字는 夏重이었으나, 1689년(康熙 28년) 그가 38세 때 孝懿 황후의 국상 중에 재상 明珠의 집에서 연극 <長生殿>을 관람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국상 중에 해서는 안 될 불경한 짓이라는 이유로 國子監 학생 명단에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사건 이후로 ‘행동을 삼가야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慎行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는 의미로 자를 悔餘로 바꾸었다. 그가 국자감 사건으로 겪었던 일련의 경험은 이후 그의 삶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였다. 사신행은 1693년(강희 32년) 44세의 나이에 비로소 순천 향시에 응시하기 시작했으나 여러 차례 낙방하다가 1702년(강희 41년) 그의 나이 53세에 드디어 進士가 되어 翰林院 編修職에 임명되었다. 강희제의 순행에 동행하며 시를 짓는 등 황제의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는 내면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솔직한 표현이 화로 다가올까 두려워 술기운을 빌린 뒤에야 眞情을 표현하고 그마저도 술이 깬 뒤에는 부끄러워하고 마는 심정을 종종 시로 드러내곤 했다.⁹⁾ 사신행은 일찍이 陸嘉淑·錢澄之·黃宗羲에게서 시법과 학문을 익혔는데, 이는 그의 理學과 경세치용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신행은 소식 시를 배워 그의 시에는 삶을 관조하고 성찰하는 철학성이 풍부하였다.

오위업과 사신행이 살았던 시대적 차이는 두 사람의 시에서도 찾아 볼

8) 이것은 한편으로는 文字獄을 통해 한족 문인들을 진압하는 강경 정책을 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문화 산업에 문인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유휴 정책을 취하는 청조의 이중적인 태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9) 그의 이런 경향은 “좌중에서 의론을 밝히고 돌아와 깊이 후회하고, 술에 취해 시를 짓고는 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네(座中放論歸長悔, 醉裏題詩醒自謙.)”라는 시구에 잘 드러난다. 이러한 모순된 심리상태로 인하여 그는 관직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김지영, <查慎行 詩 연구>, 《中國語文學硏究會》 제94집, 참고)

수 있는데, 오위업의 시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국가의 비극을 노래한 것이 많다면, 사신행의 시는 망국 유민의 비분강개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치 이상을 적극적으로 밝힌 시 또한 거의 없다. 그의 시에는 살면서 느끼게 되는 감회나 여행을 하며 보고 깨달은 장면을 적거나, 산수자연을 통해 삶에 대한 사색을 기록하는 등 작가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40여년의 시대 차이를 두고 살아간 오위업과 사신행은 왕조 교체기와 안정기라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살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작품으로 승화하였다.

조익은 오위업의 시는 唐人의 필법과 풍부한 詞藻로 올바르게 시를 지은 점을, 사신행의 시는 재기를 펼쳐냄에 있어 공력이 순수하다는 점을 각기 들어 청대를 대표할 만한 시인으로 꼽았음을 알 수 있다.

Ⅲ. 오위업과 사신행의 시 비평

1. 오위업의 시 비평

조익은 다른 시인들이 미칠 수 없는 오위업만의 시의 특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하였다.

오위업의 시에는 따라 갈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신운이 모두 당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송 이후의 어조에 빠지지 않았고, 사리를 천술하고 정황을 비유하는 것이 또한 뜻대로 구사되어 당인을 배운 무리들이 그 겉모습을 답습한 것과 다르다. 또 하나는 시의 재료는 대부분 正史를 사용하고 소설가의 말을 출처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성색을 선택해 만들어나가는 한편 화려하고 아름답기가 사람을 감동시켜 옛 사람의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킨 것과는 다르다.¹⁰⁾

10) 趙翼, 《甌北詩話》 제9권, “梅村詩有不可及者二：一則神韻悉本唐人，不落宋以

이 글에서 조익은 오위업의 시적 특징으로 먼저 唐詩를 올바로 계승한 것과 시 속에 전고를 사용함에 있어 正史의 내용만을 인용한 점이 여타의 시인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위업이 살았던 當時에는 명대 전후칠자·공안파·경릉파 등 각 유파의 주장이 마구 뒤섞여 唐音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오위업은 이백과 두보를 지표로 삼아 당시를 계승할 것을 주장하며 실제 자신의 창작에서 이를 실천했던 것이다. 오위업은 〈與宋尚木論詩書〉에서 당시 문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진정한 문학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¹¹⁾ 또한 오위업은 좋은 시를 짓기 위해서는 학식을 통해 才氣를 발휘할 것을 주장하였는데,¹²⁾ 옛 것에 대한 공부의 시의 재료가 되어 雅正한 작품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익은 오위업이 경사와 역사서에 정통하여 그가 시 속에 인용한 전고가 아주 적절하였음을 시를 예로 들어 보여주었다.¹³⁾ 조익은 오위업이 당시를 바

後腔調，而指事類情，又宛轉如意，非如學唐者之徒襲其貌也；一則它材多用正史，不取小說家故實，而選聲作色，又華豔動人，非如食古者之物而不化也。”

- 11) 吳偉業, 〈與宋尚木論詩書〉, “시에 있어 이백·두보를 추존하는 것과 문장에 있어 한유와 구양수를 숭상하는 것은 산에 태산과 화산이 있고 강에 장강과 황하가 있는 것과 같다. 우러러보며 거기에서 장점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夫詩之尊李杜, 文之尚韓歐, 此猶山之有泰華, 水之有江河, 無不仰止而取益焉, 所不待言者也.)”
- 12) 吳偉業, 〈龔芝麓詩序〉, “시인이 도를 행함은 단지 그의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정과 학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夫詩人之爲道, 不徒以其才也, 有性情焉, 有學識焉.)”
- 13) 趙翼, 《甌北詩話》 제9권, “오위업은 兩漢 三國 및 《晉書》·《南北史》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한 전고는 모두 전아하여 후인이 패관의 충절을 다 투어 취해다 신기함을 뽐낸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衛允文을 애도함〉의 “衛瓘이 장군을 필요로 하는 데 관련된 게 아니라, 高昂의 군대를 감독하러 내려 보내려고 하였다”는 바로 그가 高傑의 군대를 감독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데, 몰래 두 사람의 성씨를 잘라 넣었다. 〈杜弼武를 전송하며〉의 “雋군이 霍씨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결국 丁儀가 曹公을 감화시킨 것이다”는 두도무가 강남으로 피난했을 때 마침 오위업이 아내를 잃어서 그의 딸을 오위업의 후처로 삼고자 했지만 오위업이 이를 사양했다. 따라서 雋不疑가 霍光의 혼인을 사양한 것 및 曹操가 딸을 丁儀의 처로 삼으려 했으나 曹丕의 말 때문에 중지한 것을 들었는데, 둘 다 혼담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고사여서 참

르게 계승하여 전아하고 격조 있는 시를 지었던 점을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익은 오위업이 율시 보다는 고시에 뛰어났음을 지적하였다.

오위업은 고시가 율시보다 낫다. 그리고 고시의 뛰어난 곳은 그 묘함이 轉韻에 있다. 한 번의 전문이 시 전체의 급소가 되어 그 신축성을 배로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영화공사>는 전비의 서거를 방금 서술하고 나서 갑자기 “머리 쉰 궁녀가 남몰래 눈살을 찌푸리니, 아침 이슬처럼 일찍 사라지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어찌 알랴? 궁궐의 풀이 명년엔 전쟁의 피비린내로 뒤덮일 테니, 그 때에 서릉을 향해 통곡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또는 <왕랑곡>에서는 그가 어렸을 때 徐氏園에서 가창예인으로 있었음을 방금 서술하고 나서 갑자기 “십년의 방초에 장주는 푸르고, 주인의 못과 객사 텅 비어 교목이 우거졌다. 왕랑은 삼십 년을 장안성에서 살아, 늙어 상심 속에 옛 동산의 노래 부른다”라고 하였다. ……이런 곳은 한 번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따로 왕복순환의 묘가 있다. 그 비결은 실로 <장경집>에서 얻어온 것으로 붓의 정취가 깊고 스스로 거동에 맴시를 낼 수 있으니 이 또한 그의 타고난 재능이다.¹⁴⁾

이 글에서 조익은 오위업이 율시 보다는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운 고시에 뛰어났다고 평가하였다. 오위업은 고시 가운데서도 장편시를 즐겨 지었는데, 그의 장편고시가 뛰어난 점은 내용이 전환되는 곳에서 운을 바꾸어

으로 전아하고 적절하다고 하겠다.(梅村熟於兩漢三國及《晉書》·《南北史》，故所用皆典雅，不比後人獵取稗官叢說，以炫新奇者也。如《弔衛胤文》云：‘非關衛瓘需開府，欲下高昂在護軍。’正指其監護高傑軍，而暗切兩人姓氏。《送杜弼武》云：‘非是雋君辭霍氏，終然丁掾感曹公。’弼武避難江南，適梅村悼亡，欲以女為梅村繼室，梅村辭之；故用雋不疑感霍光之婚，及曹操欲以女妻丁儀，因曹丕言之，皆議婚不成故事也。可謂典切矣！)’

- 14) 趙翼, 《甌北詩話》 제9권, “梅村古詩勝於律詩, 而古詩擅長處, 尤妙在轉韻。一轉韻, 則通首筋脈, 倍覺靈活。如《永和宮詞》, 方紱田妃薨逝, 忽云: ‘頭白宮娥暗鬢蹙, 庸知朝露非為福。宮草明年轉血腥, 當時莫向西陵哭。’又如《王郎曲》, 方紱其少時在徐氏園中作歌伶, 忽云: ‘十年芳草長洲綠, 主人池館空喬木。王郎三十長安城, 老大傷心故園曲。’……此等處, 關板一轉, 別有往復迴環之妙。其秘訣實從《長慶集》得來。”

시의 긴장감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영화공사〉는 총 108구이고 〈왕랑곡〉은 50구로 된 장편의 7언고시인데, 모두 이런 수법을 사용해 시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매끄럽게 연결되는 묘미를 잘 살려내었다. 조익은 오위업의 고시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를 예로 들며 “〈임강참군〉〈송산애〉〈원원곡〉〈용성행〉 등은 제목이 엄숙할 뿐만 아니라 시 또한 침울하고 처량하여 실로 후세에 전할 만한 작품에 속한다. 그밖에 한적한 정취를 담은 〈송서〉〈석공산〉〈표묘봉〉〈왕랑곡〉 등의 작품은 묘사가 생동하여 기쁨과 득의의 풍모에 가깝다.”¹⁵⁾고 평가하였다. 오위업의 장편고시는 백거이에게서 영향 받은 것으로 오위업은 이런 수법을 발전시켜 자신만의 장편 칠언가행체를 만들어 이를 ‘梅村體’라 불었다. ‘매촌체’는 초당 사걸의 칠언악부 격률과 백거이의 〈長恨歌〉, 원진의 〈連昌宮詞〉 등으로 대표되는 長慶體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것이라 하겠다. 매촌체는 장편의 칠언가행으로 敘事한다는 점에서 唐代의 長慶體와 비슷하나 많은 양의 전고를 사용하고 율시의 평측법을 사용하며 대체로 네 구마다 한 번씩 轉韻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운에 있어서도 먼저 평성 운을 사용했으면 그 뒤에는 측성 운을 쓰고, 그 다음에는 다시 평성 운을 쓴다는 원칙이 있다.¹⁶⁾

조익은 오위업의 칠언율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칠언율시에 허자를 쓰지 않고 전부 실자를 사용한 것은 당대에 가지 등의 〈조조대명궁〉 작품에서 이미 그 발단을 열었다. …… 육유의 “누선을 타고 과주 나루에서 밤눈을 맞았었고, 철마를 타고 대관산에서 추풍을 맞았었네”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경치의 묘사에 불과하다. 오위업은 아울러 이것으로 사건을 서술하였고, 구절 밖으로 절로 여운이 있어서 이것이 그가 홀로 뛰어난 점이다. 예를 들어 〈형주태수 袁韞玉 대인

15) 趙翼, 《甌北詩話》 제9권, “梅村之詩最工者, 莫如〈臨江參軍〉〈松山哀〉〈圓圓曲〉〈茸城行〉諸篇, 題既鄭重, 詩亦沈鬱蒼涼, 實屬可傳之作. 其他閒情別趣, 如〈松鼠〉〈石公山〉〈縹緲峰〉〈王郎曲〉, 摹寫生動, 幾於色飛眉舞.”

16) 魏中林, 『錢仲聯講論清詩』, 21쪽, 참조.

에게 드림)의 “서주의 젊은 남녀들이 불렀던 <장대의 버들>, 남국의 강산에서 불렀던 <옥수후정화>”는 열네 자 속에 무한한 감개를 녹여 넣어서 참으로 걸작이다. …… 그의 결점은 또한 전적으로 실자만을 사용하고 허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기민하지 못하고 다만 축적감만을 주게 되어 더욱 둔탁해졌다는 데 있다.¹⁷⁾

앞서 조익은 오위업이 율시보다는 고시에서 장점을 발휘했음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오위업의 칠언율시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였다. 오위업은 칠언율시를 창작할 때 허자를 쓰지 않고 주로 실사를 사용하였다. 율시 속에 실사만을 썼던 수법은 이전 시인의 시에서도 보이는 데, 대부분은 경치를 묘사하는 경우에만 쓰였다. 그러나 오위업은 이를 확대시켜 경치의 묘사 뿐 아니라 사건을 전개할 때도 사용하였다. 이를 잘 사용하면 글 속에 언외의 의미를 담을 수 있어 시의 내용을 한없이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광둥으로 좌천되어 가는 조추악을 전송하며(送曹秋嶽謫廣東)>의 “먼 변방의 문장은 용이 변화한 것 같고, 일남의 풍속은 새가 지지귀는 것 같다(海外文章龍變化, 日南風俗鳥輻輳.)”와 <방사 주예공에게 부침(寄房師周芮公)>의 “광무산에 올라 굽어 본 광인 완적, 승명려에서 적막했던 노인 양웅(廣武登臨狂阮籍, 承明寂寞老揚雄)”은 실사의 단어만을 써서 의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외의 의미를 담아내었다. 그러나 이렇게 실사만으로 구성된 구문은 잘못 사용하면 문장전환이 기민하지 못하고, 여백의 미 없이 축적감만 주게 되어 시의 맛을 떨어뜨릴 수 있다. 조익은 이런 시구로 <雲間公의 잔치>의 “삼강의 풍월 아래 술잔 앞에서 취하고, 한 군의 황량한 정경 속에서 피리 소리 듣는다”를 예로 들며, 이 구절은 언외의 미가 없이 기성의 구절을 끌어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¹⁸⁾ 이 글에서

17) 趙翼, 《甌北詩話》 제9권, “七律不用虛字, 全用實字, 唐時賈至等<早朝大明宮>諸作, 已開其端. ……陸放翁‘樓船夜雪瓜洲渡, 鐵馬秋風大散關’, 皆是也. 然不過寫景, 梅村則並以之敘事, 而詞句外自有餘味, 此則獨擅長處. 《贈袁韞玉》云:‘西州士女<章台柳>, 南國江山<玉樹花>.’ 十四字中, 無限感慨, 固爲絕作. ……其病又在專用實字, 不用虛字, 故掉運不靈, 斡旋不轉, 徒覺堆垛, 益成呆笨.”

조익이 오위업 칠언율시의 장단점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오위업시의 시풍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오위업의 시는 본래 ‘향렴체’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아녀자의 규방 일에 관계되면 온갖 자태가 간드러지고 요염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다행히 그 절구가 전적으로 唐人을 따랐기 때문에 詞曲으로 흐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인의 뜻이 담긴 곳은 감정과 문사가 함께 지극하여 온갖 자태가 샘솟듯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은 곳은 황금을 새기고 채색을 입혔어도 결국 느끼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나라의 변고가 있는 후에 지은 〈袁韞玉에게 보내며〉에서 “서주의 젊은 남녀들이 불렀던 〈장대의 버들〉, 남국의 강산에서 불렀던 〈옥수후정화〉와 천거를 받아 소환에 응해가며 회음을 지날 때 쓴 “나는 본래 회남왕의 답이요 개였건만, 신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라고 한 몇 마디 말은 덧없는 세상살이의 비통함을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한 것이어서 실로 천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을 것이다.¹⁹⁾

오위업은 시 뿐 만아니라 사 창작에도 능하였다. 또한 그는 향렴체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어휘를 사용하기 좋아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 작품이나 규방과 관련된 시 작품 속에는 아름다운 말로 艷情의 내용을 읊은 것이 많다. 그러나 오위업은 唐人의 격조를 계승하여 그의 시가 詞曲의 엄정한 기풍으로는 흐르지 않았다. 특히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지은 시는 이런 기풍을 벗어나 세상살이의 비통함을 절실하게 표현한 가작의 작품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 〈회음을 지나면서 느낀 감상(過淮陰有感)〉(其二)²⁰⁾은

18) 趙翼, 《甌北詩話》 제9권, “〈雲間公宴〉云: ‘三江風月樽前醉, 一郡荊榛笛裡聲.’ 此則雜湊成句耳.”

19) 趙翼, 《甌北詩話》 제9권, “梅村詩本從‘香奩體’入手, 故一涉兒女閨房之事, 輒千嬌百媚, 妖豔動人. 幸其節奏全仿唐人, 不至流爲詞曲. 然有意處則情文兼至, 姿態橫生; 無意處雖鏤金錯采, 終覺膩滯可厭. 惟國變後〈贈袁韞玉〉云: ‘西州士女〈章臺柳〉, 南國江山〈玉樹花〉.’ 及被薦赴召, 路過淮陰云: ‘我是淮王舊雞犬, 不隨仙去落人間.’ 此數語俯仰處身, 悲痛最深, 實足千載不朽.”

오위업이 1653년(順治 10년) 청나라 조정의 부름을 받고 관직을 받으러 북경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이다. 시인은 명대 복왕을 따라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한편 불로장생을 생각하며 청나라 조정으로 벼슬을 하러 가고 있다. 이민족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된 시인의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한 시다. 오위업은 화려한 시풍을 배워 아름다움을 추구한 시를 많이 지었으나 그 속에 매몰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唐人을 학습하여 종파가 바르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신행의 시 비평

조익은 사신행이 근체시에 뛰어나 욱유를 계승할 만하다고 평하였다.

사신행은 근체시에 가장 뛰어나서 욱유 이후로는 그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사신행뿐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그의 오언율시 <韶州風度樓>에서 장구령을 애도하며 ‘공께서 <千秋錄>을 진상하니, 開元의 극성 시기라. 변화의 징조를 예견하는 이 동렬 중에 드물었고, 국도를 떠난 것은 그 한 몸이 늦었다. 시종일관 신하의 절조를 온전히 했고, 안위에 있어서 군주의 마음을 움직였다. 높은 누각에서 화상을 우러러보니, 풍도가 의젓한 대장부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격률과 정조는 唐 賢集 속에 놓아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칠언율시로 <汪紫滄과 함께 거주하며>의 후반부에서 ‘구유와 마구간을 함께 쓰는 말이니 서로 차거나 무는 법이 없고, 빈객을 접대하는 집안 하인은 서로 부리네. 놀랍게도 민의에 모두 합당하니, 그대와 내가 형적에 구애되지 않는 지기이기 때문이네’라고 하였다.

- 20) 趙翼, <過淮陰有感>(其二), “높이 올라 처량한 마음으로 팔공산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나무와 붉은 암벽 보이지만 올라갈 수 없다네. 장량처럼 황석노인 만날 일은 생각도 말아야 하고, 회남왕이 가졌던 鴻寶秘書 구하여 젊은 나이 보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세상에 태어나 부족한 것은 오직 한 번의 죽음인데, 속세에서는 선약인 九還丹을 구경할 수도 없다네. 나는 본시 신선된 회남왕 집의 옛 답이나 개였는데, 신선 따라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떨어져 있네.(登高悵望八公山, 琪樹丹崖未可攀. 莫想陰符遇黃石, 好將鴻寶駐朱顏. 浮生所欠只一死, 塵世無由拾九還. 我本淮王舊雞犬, 不隨仙去落人間.)”

.....이와 같이 눈앞의 자질구레한 일을 손가는 대로 쓰면서 전고 하나 사 용하지 않고 수식을 가하지 않았는데, 정취가 한없이 묻어나와 계속 머물 러 있게 만드니 고전을 운용하고 자구를 연마한 자 보다 한 수 위라 하겠 다. 또한 <사직하고 귀향하는 길에 이별 차 揆愷公園에 둘러 연꽃을 보며> 에서 ‘온갖 꽃이 춘 삼월을 다투려들 테니, 사람을 화창하게 하는 건 오히 려 그 쪽 수향이겠지’라고 하여 꽃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정면묘사와 비유 를 함께 써서 시구 안에 뜻이 있고 시구 밖에 맛이 있으니 이는 그림 중의 신품이라고 하겠다.²¹⁾

이 글에서 조익은 사신행이 근체시에서 육유를 계승하여 매우 뛰어났음 을 지적하였다. 청대 유파를 나눌 때 사신행을 宗宋派로 분류하는데, 이것 은 그가 소식과 육유 등의 송대 시인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四庫全書·總目》에서는 “송대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그 폐단에 물들지 않는 것은, 수십 년 이래로 사신행 한 사람만을 꼽을 수 있다”²²⁾고 평가하여, 송시의 풍격을 배워 시를 쓴 사람 중 그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사신행은 육유 시를 비롯한 송시를 배웠으나 그는 송시만을 높이거나 따라가지 않 았다. 그가 추구가 시의 경지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시의 중후 함[厚]은 뜻[意]에 있지 문사[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웅대함[雄]은 기(氣)에 있지 외관[貌]에 있는 것이 아니며, 시의 영(靈)은 비어 있는 것 [空]에 있지 기교[巧]에 있는 것이 아니며, 시의 담박함[淡]은 벗어난 것 [脫]에 있지 쉬운 것[易]에 있는 것이 아니다.”²³⁾ 즉 사신행은 뜻과 기를

21)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初白近體詩最擅長, 放翁以後, 未有能繼之者. …… 五律如〈韶州風度樓〉弔張曲江云: ‘公進〈千秋錄〉, 開元極盛時, 知幾同列少, 去國一身遲. 終始全臣節, 安危動主思. 高樓瞻畫像, 風度儼鬚眉.’ 此等格律氣味, 雖置之唐賢集中, 莫能優劣也. 七律如〈與汪紫滄同寓〉下半首云: ‘同槽廢馬無蹄 嚼, 典謁家僮互使令. 怪底群情皆貼妥, 多緣君與我忘形.’ ……此種眼前瑣事, 隨手寫來, 不使一典, 不著一詞, 而情味悠然, 低徊不盡, 較之運古煉句者更進矣. 又如〈長告將歸過別揆愷功園中看荷花〉云: ‘繁華肯鬪春三月, 澹蕩偏宜水一方.’ 以花自比, 正喻夾寫, 句中有意, 句外有味, 此畫中神品也.”

22) 《四庫全書·總目》, “得宋人之長而不染其弊, 數十年來, 固當爲慎行屈一指也.”

23) 查爲仁, 《蓮坡詩話》, “家伯初白老人嘗教余詩律, 謂詩之厚在意不在辭, 詩之雄

강조하고, 화려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空'의 상태에서 진정(眞情)을 끌어내고 그것을 담박한 표현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따라서 조익은 사신행의 율시 작품은 격률과 정조에 있어 唐代 문인의 문집에 넣어도 손색이 없으며, 수식을 가하지 않아도 정취가 묻어나고, 시구의 안에 뜻이 있는데다 언외의 미가 있어 上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조익이 평가한 글에서 사신행은 옥유를 계승한 宗宋派를 분류되지만, 실제 그의 근체시는 송시에만 치우치지 않고 당시와 송시를 함께 배워 그 장점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신행 시의 공력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요컨대 그의 공력의 깊이는 백거이와 옥유 뒤로는 그 한 사람일 뿐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백거이와 옥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신행도 시를 다작하기로는 그들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내가 다만 그의 다작에 놀라 그를 두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의 공력은 전적으로 재기에 달려 있어서 상상력과 솜씨를 통해 나타났는데, 어찌 다만 다작을 귀하게 여겼겠는가? 그런데 시의 훌륭한 것은 또한 다작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시를 많이 짓게 되면 그 속에서 고락의 우여곡절을 거치게 마련이어서 이른바 깊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박한 말이 없는 법이다.²⁴⁾

조익은 사신행 시가 공력이 깊어 백거이와 옥유에 버금간다고 언급하였다. 백거이와 옥유는 모두 다작한 작가로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신행 역시 평생을 시에 매진한 작가이다. 사신행의 문집 《敬業堂集》 50권과 《敬業堂續集》 6권에 수록된 시는 5000수가 넘는다. 조익은 사신행이 다작한

在氣不在貌，詩之靈在空不在巧，詩之淡在脫不在易。”

- 24)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要其功力之深, 則香山·放翁後一人而已。或謂古來作詩之多, 莫有如香山·放翁者。初白詩之多, 亦略相等。君得毋徒震於其多, 而遂欲躋之二公之列乎? 是不然也。詩之工拙, 全在才氣, 心思工夫上見, 豈徒以多爲貴? 且詩之工, 亦何嘗不自多中得來? 正惟作詩之多, 則其中甘苦曲折, 無不經歷, 所謂深人無淺語也。”

것에서 공력의 이유를 찾지 않았다. 사신행의 재기와 상상력과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조익은 《구북시화》에 사신행을 선정한 이유를 “오직 사신행만이 재기를 펼쳐냄에 있어 공력이 순수하고 능수능란해 내 친근한 생각으로는 그로써 여러 현인의 뒤에 잇도록 하고 싶다(惟查初白才氣展開, 工力純熟, 鄙意欲以繼諸賢之後)”라고 말한 것에서도 그의 공력을 높게 샅음을 알 수 있다. 조익은 사신행이 공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는 서울로 들어온 후 과거 시험장에서 승부를 겨루는 한편 의식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체험이 쌓이고 단련이 깊어졌다. 그리하여 기개가 넘치니 격조가 절로 진작되고 의미가 깊으니 여운이 있으며, 마음먹은 대로 시가 이루어져서 타당하지 않은 글자가 없게 되었다. 그 밖에 경물의 묘사는 입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시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餘技에 불과했다.”²⁵⁾ 사신행은 온몸으로 겪었던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 공력이 깊어져 그의 시는 기개가 흐르고 여운이 넘쳐 시구에 쓸데없는 말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익은 사신행이 예술수법 가운데 백묘에 뛰어났음을 언급하였다.

오위업은 즐겨 서권을 사용했지만 가끔 인용이 적당치 않아 문사가 뜻에 누를 끼쳤다. 사신행은 의론을 좋아한데다가 전적으로 백묘를 사용하여 짧고 급박한 절조로 성조와 음절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뛰어나므로 그의 고시는 걸핏하면 수백 수천의 말을 전고 없이 구사하여 좀 허약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오위업의 시는 전고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단점으로서 오히려 느끼하고 답답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일단 백묘의 수법을 구사한 곳을 만나면 심신이 상쾌하고 눈앞이 탁 트여 감정이 문사에 넘친다. 한편 사신행의 시는 백묘의 사용이 너무 많은 것이 단점으로서 함축성이 없고 허약하지만 일단 전고를 사용한 곳을 만나면 분명하고 정확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온당하여 문사와 뜻이 함께 훌륭하다. 이것이 두 사람 시의 다른 점이다.

25)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入京以後, 角逐名場, 奔走衣食, 閱歷益久, 鍛鍊益深, 氣足則調自振, 意深則味有餘, 得心應手, 幾於無一者不穩愜, 其他摹寫景物, 脫口渾成, 猶其餘技也.”

다. …… 사신행의 시는 분명하고 알기 쉬워서 우열을 다투기가 어렵다.²⁶⁾

이 글에서 오위업은 전고를 많이 사용했고 사신행은 백묘의 수법을 즐겨 사용했음을 언급하였다. 사신행은 시의 뜻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백묘의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시에 대한 생각을 논하며 “시의 담박함은 벗어난 것[脫]에 있지 쉬운 것[易]에 있는 것이 아니다(詩之淡在脫, 不在易.)”라고 하여 ‘淡’의 경지가 단순히 평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²⁷⁾ 사신행이 말하는 ‘淡’은 ‘천 번 망치질하고 백 번 단련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千錘百鍊而出於自然)²⁸⁾’, 즉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과정을 겪은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이러한 시의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 사신행은 화려한 수식보다는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白描法을 즐겨 사용했다. 이러한 수법이 잘 발휘된 작품은 읽으면 심신이 상쾌해지고 눈앞이 탁 트여 감정이 문사에 넘쳐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장편의 고시 가운데는 전적으로 백묘의 수법만을 사용해서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고 허약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을 통해 조익은 사신행이 즐겨 사용했던 백묘수법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했음을 알 수 있겠다.

26)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吳梅村好用書卷, 而引用不當, 往注意爲詞累. 初白好議論, 而專用白描, 則宜短節促調, 以適緊見工, 乃古詩動千百言, 而無典故驅駕, 便似單薄. 故梅村詩嫌其使典過繁, 繁致膩滯, 一遇白描處, 即爽心豁目, 情餘於文, 初白詩又嫌其白描太多, 稍覺寒儉, 一遇使典處, 即清切沈穩, 詞意兼工. 此兩家詩之不同也.”

27) 주) 23 참조.

28) 사신행이 왕유 시 〈晚春答嚴少尹諸公見過〉 중 ‘鶯啼過落花’구의 ‘過’자에 대해 평한 말이다.

Ⅳ. 《구북시화》의 청시 비평 방식

1. 작가의 시대와 성장 배경 고찰

조익은 청대의 작가와 작품을 평가할 때 시인의 경력과 역사 환경을 연계하여 그의 사상과 창작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조익은 오위업의 시를 논하면서 그의 많은 작품들이 당시의 사건을 소재로 지은 것이라 밝혔다.

오위업은 왕조 교체를 직접 목격하여 그가 지은 시는 당시의 큰 사건에 관한 것이 많다. 〈임강참군〉〈남상원수〉〈영화궁사〉〈낙양행〉〈전상행〉〈소사청문곡〉〈송산애〉〈안문상서행〉〈임회노기행〉〈초양생행〉〈원원곡〉〈사랑장공주만사〉 등의 작품은 모두 당시의 사건과 지극히 관계가 있다. 사건이 본래 전해질만한 것이었으므로 시 또한 쉽게 전해졌다. 오위업은 한눈에 가름 잡아 마침내 온 힘을 기울여 이 수십 편을 찬술하는 것을 불후의 계책으로 삼았으나 이 시인의 혜안은 제목을 취하는 데 뛰어났다고 하겠다”²⁹⁾

이 글에서 조익은 오위업이 왕조 교체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목격한 당시의 큰 사건을 소재로 시를 지었다고 언급하였다. 생전에 왕조가 바뀌는 변고를 경험했던 오위업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여겨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그는 당시의 지식인으로 시가 역사와 통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송산의 슬픔(松山哀)〉³⁰⁾은 오위업이 청 1655년(順治 12년)에 쓴 것으로,

29) 趙翼, 《甌北詩話》 제9권, “梅村身閱鼎革, 其所詠多有關於時事之大者. 如〈臨江參軍〉〈南廂園叟〉〈永和宮詞〉〈雒陽行〉〈殿上行〉〈蕭史青門曲〉〈松山哀〉〈雁門尚書行〉〈臨淮老妓行〉〈楚兩生行〉〈圓圓曲〉〈思陵長公主挽詞〉等作, 皆極有關係. 事本易傳, 則詩亦易傳. 梅村一眼覷定, 遂用全力結撰此數十篇, 爲不朽計, 此詩人慧眼, 善於取題處.”

30) 吳偉業, 〈松山哀〉, “검을 빼들고 기둥에 기대니 슬픔이 밀려오는데, 그대를 위해 비분한 마음으로 송산을 노래하네. 노룡은 동쪽으로 달려 바다로 들어가는데, 우뚝 솟아 지탱하며 산해관을 마주하고 있네. 연이은 성벽은 길게 뻗어

명조의 종말을 가져온 松山 전투를 소재로 삼았다. 명조는 송산 전투에서의 대패로 인해 錦州城과 산해관을 청조에 내주고 난 뒤 결국 북경이 함락당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송산 전투는 명조가 망하고 청조가 중원으로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오위업은 청조가 지배하는 현실 앞에서 송산 전투의 처절함을 돌이켜 보았다. 송산엔 한날 죽은 13만 병사의 유골이 가득한데, 명군을 이끌다 청조에 항복한 홍승주는 도성인 盛京으로 끌려갔지만 청태종의 회유에 다시 그의 신하가 되었다. 전쟁에서 폐허가 된 산천과 이젠 귀신이 된 병사들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 오위업은 당시의 사건을 서술하며 시대에 대한 감회를 써 내려갔다. 그가 보기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이킬 수

끝이 보이지 않으니, 우뚝 솟은 송산 봉우리에는 구름이 서려있네. 송산 안에
 는 돌로 쌓은 보루가 있는데, 백골이 가파르게 솟은 산처럼 쌓여 있네. 십삼만
 병사가 같은 날 전사했는데, 피로 물든 혼하는 더욱 세차게 흐르네. 어찌 다른
 상황을 만나지 않았는가? 화는 순식간에 일어났네. 출사하여 노고 끝에 지위
 가 장상에 이르렀는데, 남만 정복의 공적에 관리가 되어 다시 등단했네. 지난
 날의 부하들을 회상하면, 탄식이 절로 나와 비통하기 그지없네. 오호라, 밤에
 만주족 성루에는 호각소리 울리고, 살기 넘친 군대의 함성은 하늘에 진동하네.
 하루아침에 산해관으로 침공해 들어왔는데, 화려한 가죽옷을 입은 팔기군은
 희희낙락거리네. 머리 돌려 쭉이 무성한 천산을 바라보니, 인적이 드물어 경작
 지가 거의 없네. 석양 비치는 피폐한 성루에는 사람 보이지 않고, 오직 많은
 귀신만이 남아 적막을 메우네. 산천을 이렇게 적막하게 만들고자 했으면, 어찌
 서 것처럼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르겠네. 조정에서 옛 도성을 그리워한다고 들
 었는데, 밭갈이 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조서가 내려왔네. 양하 지역의 젊은
 장정들은 다 징집되었으니, 도성 일대에 사는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수밖에. 소
 등에 탄 농부들이 나뉘어 이송되는데, 닭 울자 관리가 이름을 불러 인원을 점
 검하네. 오늘날 살아 번성하기 힘든 것은 진작 알았지만, 중원에서 밭 갈다 싸
 워야 했던 농민들 가엾다네. (拔劍倚柱悲無端，爲君慷慨歌松山。盧龍蜿蜒東走欲
 入海，屹然撐拄當雄關。連城列障去不息，茲山突兀煙峰攢。中有壘石之軍盤，白
 骨撐距凌巖垣。十三萬兵同日死，渾河流血增奔湍。豈無遭際異，變化須臾間。出
 身憂勞致將相，征蠻建節重登壇。還憶往時舊部曲，喟然歎息摧心肝。嗚呼！玄菟
 城頭夜吹角，殺氣軍聲振寥廓。一旦功成進入關，錦裘跨馬征夫樂。天山回首長蓬
 蒿，煙火蕭條少耕作。廢壘斜陽不見人，廢壘斜陽不見人，獨留萬鬼填寂寞。若使
 山川如此閑，不知何事爭強弱。聞道朝廷念舊京，詔書招募起春耕。兩河少壯丁男
 盡，三輔流移故土輕。牛背農夫分部送，雞鳴關吏點行頻。早知今日勞生聚，可惜
 中原耕戰人！)

없는 것으로 백성들은 현실에 적응하여 그 바퀴의 순환을 따라갈 뿐이다. 〈원원곡(圓圓曲)〉은 1651년(順治 8년)에 지어진 7언 가행체의 작품이다. 시 속에 명말의 장수 오삼계와 당시 蘇州의 유명한 기생 진원원³¹⁾의 애정 고사를 명말 청초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엮어 풀어내었다. 이 시는 시대역사를 바꾸어 놓도록 만든 당시의 미녀 진원원의 이름을 따서 시 제목으로 삼았다. 오위업은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던 이야기를 소재로 애정고사 속에 망국의 비애를 담아내어,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이 작품은 널리 애독되었다. 이처럼 오위업은 당시에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건이나 애정고사를 소재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시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질 수 있었다. 조익은 당시의 사건을 한 눈에 가름 잡아 이를 소재로 수십 편의 작품을 썼던 오위업의 혜안이 뛰어났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조익은 사신행의 젊어서의 다양한 경험이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젊었을 때 기질이 예민하여 貴州와 荊楚 일대에 종군하면서 군마를 타고 강산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손을 대면 침착하고 굳세며 웅건하여 幽州와 并州의 기상이 있었다. 중년에 中州를 유람했는데, 그 지역에 빼어난 유적이 많아 더욱 그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기에 족했다. 그는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옛일을 회상하고, 비분강개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의 시집 속에서 이 몇 권이 가장 뛰어나다. 그가 황제의 소견을 받은 후에는 더욱 세심하여 적절한 표현에 힘써 사물에 따라 형체를 본뵈으므로 알맞지 않은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³²⁾

31) 陳圓圓은 명말 蘇州의 유명한 기생으로 성은 邢, 이름은 沅, 자는 畹芬, 小字는 圓圓이다. 崇禎 연간에 田弘遇가 거금을 주고 원원을 구해 황제에게 바쳤으나, 황제가 관심을 주지 않자 다시 궁전에서 나왔다. 승정 황제의 아내 田貴妃의 아버지였던 田弘遇는 원원을 집에 두고 있었는데, 당시 寧遠總兵이었던 오삼계 장군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하였다.

32)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當其年少氣銳, 從軍黔·楚, 有江山戎馬之助, 故出手即沉雄踔厲, 有幽·并之氣. 中年遊中州, 地多勝蹟, 益足以發抒其才思, 登臨懷古, 慷慨悲歌, 集中此數卷爲最勝. 內召以後, 更細意熨貼, 因物賦形, 無一字不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신행의 시를 살펴보면 그가 젊었을 때 黔南 巡撫 楊雍建을 따라 남쪽으로 갔는데, 그 때는 역도 오삼계가 막 죽고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을 때였다. 관군이 검남과 운남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사신행은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유랑하는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시를 썼기 때문에 비분강개하면서도 깊고 웅건한 기상을 띠고 있어서 小家에 떨어지지 않았다.³³⁾

조익은 이상의 두 글에서 사신행이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종군에 참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을 시에 담아내어 웅건하고 빼어난 기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사신행은 1679년(강희 18년) 30세 때 荊州에서 동향사람인 貴州巡撫 楊雍建을 따라 종군하여 吳三桂 일당을 평정하는데 참여했다. 실제 이 시기와 이후 몇 번의 종군, 장기간의 원행에서 얻어진 다양한 경험은 그의 시작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사신행은 오삼계의 변을 진압하기 위해 종군하여 지금의 귀주 지방인 黔 지역에 갔을 때 목격한 지역민들의 궁핍한 삶을 시로 썼다. <처음 귀주 지역에 들어가니, 지역 사람들이 모두 가파른 바위절벽 사이에 살면서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원숭이와 다를 바 없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이 시를 짓는다(初入黔境土人皆居懸巖峭壁間緣梯上下, 與猿猴無異, 睹之心惻而作是詩)>라는 긴 제목의 시는 1680년(강희 19년)에 쓴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 위에 사는 풍속은 예전 그 대로이지만, 바위 동굴은 높기가 수만의 나무 꼭대기에 이른다네. 몇 곳을 쫓겨 다녔으니 아직도 동무들이 있겠는가? 예전의 샘과 아궁이에는 연기가 끊어졌네. 남은 삶 전쟁에 도망 다니느라 안정되게 살기 어렵고, 변경 지역의 논밭은 척박하여 가련하다. 현령에게 세금징수를 관대하게 해달라고 아뢰니, 원숭이 같은 집안은 오래전에 텅 비었네.”³⁴⁾ 사신행은 귀주에

穩愜.”

33)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今試平心閱初白詩, 當其少年, 隨黔撫楊雍建南行, 其時吳逆方死, 餘孽尚存, 官軍恢復黔·滇, 兵戈殺黔之慘, 民苗流離之狀, 皆所目擊, 故出手即帶感慨沉雄之氣, 不落小家.”

서 전란을 겪으며 더욱 곤궁해진 이곳 지역민들의 생활을 목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유랑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조익은 사실행이 생활경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용을 시에 담아냈기 때문에, 시 속에 깊고 웅건한 기상이 있어 그의 시가 小家の 무리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2. 비교와 고증의 수법 사용

조익은 작가나 작품의 특징을 논하며 비교와 고증의 방식을 통해 논지를 전개해 나갔다. 먼저 오위업의 시의 특징을 고계와 비교하며 논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그의 기력을 논하면 다소 쇠약하여 고계의 웅건함만 못하고 언어가 번잡하여 고계의 맑고 빼어난 것만 못하다. 그러나 시사에 감개비분하고 신세를 돌아봄에 있어서 구성지고 애절하며 문사에 감정이 넘치는 것은 고계에 비해 그 의경과 맛이 심후한 것 같다.³⁴⁾

이 글에서 조익은 오위업 시의 기력을 논하며 원대 고계 시의 풍격과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즉 고계의 시는 시풍이 웅건하고 빼어난데, 오위업의 시는 고계에 비하면 기력이 쇠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위업은 비분감개한 감정으로 시를 지었기 때문에 내용이 구성지고 애절하며 문사에 감정이 넘쳐나 시의 맛이 깊다. 이런 의경은 고계 시가 따라올 수 없는

34) 查慎行, 〈初入黔境土人皆居懸巖峭壁間緣梯上下, 與猿猴無異, 睹之心惻而作是詩〉, “巢居風俗故依然, 石穴高當萬木顛, 幾地流移還有伴, 舊時井竈斷無煙, 餘生兵革逃難穩, 絕塞田疇瘠可憐, 爲報長官寬賦斂, 彌猿家室久如懸。”

35) 趙翼, 《甌北詩話》 제9권, “若論其氣稍衰頹, 不如青丘之健舉; 語多疵累, 不如青丘之清雋; 而感愴時事, 俯仰身世, 纏綿悽惋, 情餘於文, 則較青丘覺意味深厚也。”

점이다. 조익은 이런 비교의 방식을 통해 오위업 시의 의경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다음은 사신행의 율시를 옥유의 것과 비교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사신행의 율시를 옥유와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옥유는 전고의 사용이 정교하고 경물의 묘사가 참신하고 아름답다는 점에서 본디 사신행 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옥유는 주로 자신의 흥금을 묘사하고 사람과 지역을 따라 그 곡절을 써 내려간 것이 아니므로 왕왕 먼저 佳句를 얻으면 시를 이루기에 족했다. 한편 사신행은 사건과 사람에 따라 각기 그 양만큼 정교하게 사물을 묘사할 수 있고 뜻을 세움이 절실하여 그가 옥유보다 못한 점이 여기에 있고 옥유보다 더욱 어려운 점 또한 여기에 있다.³⁶⁾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신행은 율시에 뛰어났다. 그는 송시를 학습하면 서도 송시에 폐단이 빠지지 않고 당송시의 장점을 고루 배웠다. 또한 조익은 옥유 이후로 그의 근체시를 계승한 이는 사신행 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조익은 사신행과 옥유의 율시 특징을 서로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먼저 옥유의 율시는 전고를 정교하게 사용하여 시가 참신하고 아름다웠는데, 종종 좋은 시구를 얻으면 거기에서 멈추었다. 반면 사신행은 시 속에 흥금을 털어놓고 사람과 지역에 따라 곡절 있게 써내려가 묘사가 정교하고 내용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율시를 참신하고 아름답게 쓴 점에서는 옥유가 뛰어나나, 사신행은 사람과 사건에 따라 글을 써내려가 옥유 시 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옥유보다는 사신행을 더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오위업과 사신행의 예술수법을 비교의 방식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³⁷⁾ 이렇게 조익은 서로 다른 시인의 특징을 대

36) 趙翼, 《甌北詩話》 제10권, “以初白律詩與放翁相較: 放翁使事精工, 寫景新麗, 固遠勝初白, 然放翁多自寫胸臆, 非因人因地, 曲折以赴, 往往先得佳句, 而足成之, 初白則隨事隨人, 各如其量, 肖物能工, 用意必切, 其不如放翁之大在此, 而較放翁更難亦在此.”

37) 주)26 참고.

비시킴으로써 한 작가의 시적 특징을 더 두드러지게 하였다.

조익은 또한 시인이나 시 작품을 분석할 때 고증의 수법을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익은 오위업이 청대에서 잠시 관직에 오른 일을 두고 그가 출사한 일은 실제 문제가 없음을 오위업의 시를 들어 논증하였다.

오위업은 출사와 은거의 결정과정에서 본디 문제 삼을 점이 없지 않지만 그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였으므로 결국 본심이 우매한 것은 아니었다. 신흥 왕조에 출사하여 서로 경하한 자들과 비교해보면 본디 다르지만, 스스로 실질을 꺼려서 오히려 전 왕조의 유민으로 자처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욱 함께 들어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 소환에 응하여 복행할 때 회음을 지나며 말하길, “나는 본래 회남왕의 닭이요 개였건만, 신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라고 하였고, <우울한 마음 달래며>에서 “고인은 지난날 처자를 회생시켜 재난을 구했지만,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어찌 감히 죽으랴!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이르니, 가서 따르고자 하지만 청사에 부끄럽구나”라고 하였고, 임종 시에는 “고인은 강개하여 빼어난 절조 많았는데, 나는 당년에 끊임없이 머뭇거리며 구차하게 살아남았다. 처자를 가볍게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끝내 한 푼의 가치도 없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지금에 이르도록 독자들은 오히려 그 때문에 쓰라리고 가슴 아프다. 제가 일찍이 그의 시집에 제하여 “나라가 망했을 때 이미 양친을 모시기 위해 돌아왔고 그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으니 차츰가 비교적 한산하다. 다행이 이름이 투항의 표문에 오르지 않아 저술을 하며 늙어 감을 달게 여겼다. 은둔한 인재를 찾아다녔던 程文海, <애강남부>를 지었던 庾信, 머뭇거리며 구차하게 살아남은 것을 읊은 시구가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흘린 자국을 보고 싶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평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³⁸⁾

38) 趙翼, 《甌北詩話》 제9권, “梅村出處之際, 固不無可議. 然其顧惜身名, 自慚自悔, 究是本心不昧. 以視夫身仕興朝, 彈冠相慶者, 固不同; 比之自諱失節, 反託於遺民故老者, 更不可同年語矣. 如赴召北行, 過滄陰云: “我是淮王舊雞犬, 不隨仙去落人間.” <遺閔>云: “故人往日媵妻子, 我因親在何敢死! 憔悴而今至於此, 欲往從之愧青史.” 臨歿云: “故人慷慨多奇節, 爲當年沉吟不斷, 草間偷活, 脫屣妻孥非易事, 竟一錢不值何須說!” 至今讀者猶爲悽愴傷懷, 餘嘗題其集

이 글에서 조익은 오위업이 청조에 출사에 한 일에 대해 논하며 이는 양해할 만한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오위업은 명이 멸망한 후 1653년(順治 10년) 청조의 부름을 받고 귀순하여 密書院侍講을 제수 받고, 후에 國子監祭酒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결국 1656년(順治 13년) 두 왕조를 섬긴 변절한 문인이라는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생을 보냈다. 조익은 오위업이 당시 청조에 출사하여 서로 경하한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며, 오위업 스스로 전 왕조의 유민들로 자처한 이들에게 몹시 부끄러워했으니 그의 본심이 우매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오위업이 〈過淮陰有感〉·〈遺悶〉·〈臨終詩〉 등에서 이미 자신의 행적을 자탄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으며, 명조가 망했을 당시 양친을 모시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가 목숨을 부지한 것이니 그렇게 구차한 것도 아니라 여겼다. 조익은 오위업의 작품과 그의 행적을 하나씩 들어 오위업이 청조에 출사한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증의 수법으로 논증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조익은 오위업의 시구 속에 보이는 동기생 衛允文·左懋第 등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신행의 시구를 풀이하면서 서도 고증의 수법으로 논하였다.

V. 결론

본고는 청대의 대표 시화집인 《구북시화》를 텍스트로 오위업과 사신행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였다. 조익은 복고주의가 만연했던 당시의 시단에 서 시는 시대마다 변화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청대의 시가를 새롭게 연 작가로 오위업과 사신행을 꼽았다. 오위업은 명말·청초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를 살면서 청조에 잠시 관직에 나갔던 행적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와 자

云：“國亡時已養親還，同是全生跡較閒。幸未名登降表內，已甘身老著書間。訪才林下程文海，作賦江南庾子山。剩有沉吟偷活句，令人想見淚痕澆。似覺平允之論也。”

책 속에 살았다. 사신행은 시대적으로는 청조의 안정기에 살았으나, 36세 때 孝懿 황후의 국상 중에 〈長生殿〉을 관람한 일로 國子監 학생 명단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평생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40년의 시대적 차이를 두고 살았던 두 사람은 왕조 교체기와 안정기라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았지만 각자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본고에서 살펴본 조익의 청대 작가 시에 대한 비평과 《구북시화》의 청시 비평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대 시인에 대한 시 비평을 보기로 한다. 조익은 오위업 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가 당인의 격조를 올바르게 계승한 점과 전고를 사용할 때 正史만을 사용한 점을 들었다. 또한 오위업은 율시보다는 고시에 뛰어났는데 이는 轉韻을 통해 시의 긴장감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고, 칠언율시의 경우는 시 속에 허자를 쓰지 않고 실사를 주로 사용해 시의 민첩함이 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오위업은 처음에 화려한 향련체를 배웠으나 계속 이런 기풍으로 흐르지 않은 것은 그가 唐詩를 학습해 종파가 바르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사신행은 근체시에서 육유를 계승하여 매우 뛰어났는데 이는 사신행이 宋詩뿐 아니라 唐詩의 장점도 잘 취했기 때문이었다. 사신행은 공력이 순수하고 깊었는데 이는 사신행의 삶에서 체득된 것이며 이로 인해 시에 기개가 넘치고 시구에 쓸데없이 말이 없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사신행은 백묘의 수법을 즐겨 써 시의 뜻이 분명하고 상쾌하며 감정이 문사에 넘쳐났는데, 이를 지나치게 사용한 경우는 말이 길어져 문장이 허약해진 단점도 지녔음을 함께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조익은 청시를 평가하면서 시인의 경력과 작가의 역사 환경을 연계해 시인의 창작배경을 고찰하였다. 오위업은 왕조의 교체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 가운데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시가 많았다. 사신행은 젊어서 귀주와 荊楚 일대에서 종군하며 장기간의 원정경험이 있었는데, 이를 시 속에 담아내어 시가 웅건한 기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익은 청시 비평을 전개하면서 비교와 고증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비교의 방식을 통해 작가의 특징을 선명하게 부각시켰으며, 고증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오위업과 사신행은 청시의 기틀을 세우고 이후 청시 시가의 방향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본고는 시가 발전관의 관점을 가졌던 청대 대표 지식인의 관점에서 청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조명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1. Fujian Shifandaxue Zhongwenke Gudianwenxueyanjiushi. *Qingshixuan*. Beijing: Renminwenxue Press, 1984.
2. Kim Hakju. *Qingdaishixuan*. Seoul: Mingwentang Press, 2006.
3. Kim Ji-Young. “A Study on the Zao-Yi’s Poetics reflected in Oubei Shihua”. *Zhongguowenxue* Vol.54, (2008).
4. Kim Ji-Young. “A Study on the Zao-Yi’s Poetry which criticize Poetry in the form of Poetry”. *Zhongguowenxue* Vol.56, (2009).
5. Kim Ji-Young. “A Study on the Zha Shen-xing poetry”. *Zhongguoyu wenxueyanjiuhui* Vol.94, (2015).
6. Kim Ji-Young. “A study on Wu Wei-ye’s poetry singing the age of despair”. *Zhongguoyuwenxueyanjiuhui* Vol.104, (2017).
7. Kondo Mitsuo. *Qingshixuan*. Tokyo: Shueisha Press, 1967.
8. Liu Shinan. *Qingshiliupaishi*, Taibei, Wenjin Press, 1995.
9. Song Yong-jun. *Zhongguohanshi*,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14.
10. Tang Fuling. *MingQingwenxueshi*. Wuhan, Wuhan University Press, 1991.
11. Wei Zhonglin. *Qian Zhong-lianjianglunqingshi*, Suzhou, Suzhou University Press, 2004.
12. Wu Hongyi. *Qingdaishixuechutan*. Taiwan, Mutong Press, 1977.

13. Wu Zhida. *MingQingwenxueshi*. Sizhou, Wuhan University Press, 1991.
14. Yan Dichang. *Qingshishi(Volumn I)*. Hangzhou, Zhejiang old book Press, 2002.
15. Zhao Yi, *Oubeishihua*, Beijing, Renmin Literature Press,, 1981.
16. Zhao Yi, *Oubeiji*, Shanghai, Shanghai Old book Press, 1997.
17. Zhao Yi Write, Song Yong-jun Translation, *Oubeishihu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09.
18. Zu Zejie. *Qingshishi*. Jiangsu, Old book Press, 1992.

<참고문헌>

1. 福建師範大學中文科 古典文學研究室, 《清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2. 김학주, 《청대시선》, 서울, 명문당, 2006.
3. 김지영, 〈甌北詩話에 나타난 趙翼의 詩論 연구〉, 《중국문학》 제54집, 2008.
4. 김지영, 〈趙翼의 論詩詩 연구〉, 《중국문학》 제56집, 2009.
5. 김지영, 〈查慎行 詩 연구〉, 《中國語文學研究會》 제94집, 2015.
6. 김지영, 〈절망의 시대를 노래한 吳偉業 시 연구〉, 《中國語文學研究會》 제104집, 2017.
7. 近藤光男, 《清詩選》, 東京, 集英社, 1967.
8. 劉世南, 《清詩流派史》, 臺北, 文津出版社, 1995.
9. 송용준 주해, 《중국한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0. 唐富齡, 《明清文學史》清代卷,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1.
11. 嚴迪昌, 《清詩史》上,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12. 魏中林, 《錢仲聯講論清詩》, 蘇州, 蘇州大學出版社, 2004.

13. 吳宏一, 《清代詩學初探》, 臺灣, 牧童出版社, 民國66.
14. 吳志達, 《明清文學史》, 四川, 武漢大學出版社, 1991.
15. 趙翼, 《甌北詩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16. 趙翼 著, 李學穎·曹光甫 校點, 《甌北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17. 趙翼 著, 宋龍準 譯解, 《甌北詩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18. 朱則杰, 《清詩史》, 江蘇, 古籍出版社, 1992.

<Abstract>

Zao-Yi's 《OubeiShihua》 is a representative poetry criticism in Qing Dynasty. The 《OubeiShihua》 consists of 12 volumes, and has selected ten representative poets of China and focused on their poetry. There are not only poets of Yuan, Ming, but also poets of Qing Dynasty poets in 《OubeiShihua》. In particular, Wu Wei-ye and Zha Shen-xing, who are only decades old than themselves, are discussed side-by-side with Li-Bai and Du-Fu. It was possible because of Zao-Yi's developing point of view on poetry.

In this paper, I review the Qing poetry evaluation method mentioned in the text of 《OubeiShihua》 of Qing Dynasty poet. Because Zao-Yi lived in the middle of the Qing Dynasty, he clearly realized the rich and abundant information of Wu Wei-ye and Zha Shen-xing, the representative poets of Qing Dynasty living in front of him,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s.

Wu Wei-ye and Zha Shen-xing has lived in a different age by forty years away and has worked on different backgrounds ; in the age of a replacement of the dynasty and a stability of the dynasty respectively. This paper will show the clear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of Wu Wei-

ye and Zha Shen-xing more closely through the viewpoint of Qing's intellectuals, and furthermore, this work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Qing poetry.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Zao's poetic and his viewpoints on Qing poetry, and then examines poetry criticism of Wu Wei-ye and Zha Shen-xing represented in 《OubeiShihua》 Next, it analyze the evaluation methods in 《OubeiShihua》 with the aspects of 1) the author's age and growth background, 2) comparison of poetry and the historical research method.

Key Words : Zao-Yi(趙翼), OubeiShihua(甌北詩話), Qing poetry(清詩),
Wu Wei-ye(吳偉業), Zha Shen-xing(查慎行)

